



心實愛世
攝信慈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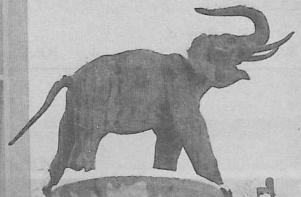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리-2143호·월간·비매출)

東友會報

1985年 12月 31日 第108號 [1]

발행인	鄭申	哲炫
편집인	鄭申	鎬
인쇄인	申興來	
편집부장		
東國大學校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 필동 3가 26 전화: (직) 267-8568 · 274-7449 (교) 267-8131 ~ 9 (465)		
우편대체: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謹賀新年



그래도 우리가 춤고 괴롭지 않았던 것은
서로 몸을 노이는 더운 체온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강당 앞 줄은 뜰에서
도서관 가파른 층계에서
교문을 오르는 돌박힌 물목에서
부딪치고 감싸고 맘부비는 꿈이 있어서 다행이 있어서 응어리가 있어서
겨울은 해마다 포근했고
새해는 잘 트인 큰 걸처럼 환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지나온 길에
붉고 빛나는 꽃들이 편 것을 본다
우리를 꿈과 다행과 응어리가
부딪치고 감싸고 맘부비는 속에
화려하게 피워 놓은 꽃들을 본다

불기 없는 환자 강의실에서는
교수님의 말씀보다
뒷산 솔바람 소리가 더 잘 들렸다
울지로 사자를 지나는 전차 소리는
얼음이 깨지는 소리처럼 차고
서울에서도 겨울이 가장 빠른 교정에는
낙엽보다 쌔락눈이 먼저 와 깔렸다

申庚林(63 열로·詩人)

우리가
지나온 길에
新年詩

"Made in Germany means quality, but some have PURE Quality!"

20余年 獨逸, 西歐羅巴에서
우리나라, 中東, 東南亞,
阿弗利加, 美國等과
各種品目의 貿易去來,
技術諮詢, 事業管理 等의
貴重한 經驗으로, 相互
協助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品質과 價格은 成功의
씨앗입니다.
願하시는 問議에 誠實히
報答하고 있읍니다.



社長 陈基

Tel.: 4103032/33, 4106401, Telex: 21 1313 choy d
Böhmersweg 5, 2000 Hamburg 13, West Germany

As you know, the german quality is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but some have PURE Quality as we know.

Therefore we are working successfully in Foreign Trade, Technical Consulting and Project Management with many german products (as well as other european products), more than 20-Year-Experience, from the simplest machines to the sophisticated plants.

This includes full service and licence-transfer if necessary.

Are you interested in?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we will do our best!

CHOY KG

Henry Chan Key Choy
President

(Ofcourse we also import your products)

CHOY KG

鄭飛石長篇小說 小孫子 兵法

春秋戰國時代, 그 난세의 영웅 호걸들이
다채롭게 펼치는 장엄무쌍의 일진일퇴!
한국 소설 문단의 巨匠 鄭飛石이
성공의 지혜를 설파한 현대인의 성전!

천하명장 孫武와 그의 손자 孫臏, 제세의
아망과 복수의 칼을 가는 5·16국의 제왕들, 그 희내의
영웅 미녀들이 엮어가는 흥망성쇠와 이합집산의 드라마를
통해 인간사의 철리를 새삼 깨우쳐 주는 김동적인 小說

孫子兵法은 단순한 兵書가 아닙니다!
케케묵은 옛날 이야기도 아닙니다!
차원높은 저세의 비법을 깨우쳐줄
재미있고 유익한 小說 孫子兵法!

소설 손자병법은 합리적인 기업경영, 원만한
인간관계 그리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세상사의
힐리를 터득하여 성공의 지름길을 찾고자 하시는
바로 당신이 읽으셔야 할 현대인의 성전입니다.

小説孫子兵法에 이은 또 다른 力作 小説楚漢誌 小説三國志
전3권/각권 각 300면내외/각권 값 2,800원/◆ 서점에 있습니다.

小說 三國志

*男子가 뜻을 세우고 여자가 세상을 밟을 기회 막강! 妙豪篇!
*男子가 뜻을 세우고 여자가 세상을 밟을 기회 막강! 妙豪篇!
*男子가 뜻을 세우고 여자가 세상을 밟을 기회 막강! 妙豪篇!
*男子가 뜻을 세우고 여자가 세상을 밟을 기회 막강! 妙豪篇!



小說楚漢誌

*鄭飛石이 내용은 또 하나의 인생 교과서! 지혜로운 삶을 위해 현대인이
필여 써야 할 성공의 지침! 나눠자는 참담하고 용대한 대하소설 小説楚漢誌!

지혜로운 삶! 7월 10일 출판 예상에 따른 小説楚漢誌! 지혜로운 삶을 위한 저작
작품은 鄭飛石이 저작한 고고한 그릇을 한데 몸에
관하여 당시에는 통일된 고고한 그릇을 한데 몸에
소설이란 그 때 영웅들이 전하는 파란방울과 푸른방울
통하고 서로에게 인정하는 거리에 걸려온 그릇을 한데 몸에
놓은 사람 치세학 저작서!

제1권/각권 각 300면 내외
각권 값 2,8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기꺼이 서점에 찾아 입으면 책값을 무찌르고 교환, 서울 중구 사직동 6622호
교원부(기획부) 앞으로 책값을 적어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송료 본사 부담. 우승하여 드립니다.



서울·종로구 수동동 46-2
서울 종암사서점 제 6622 호
영업부 : (744) 7741 ~ 3
편집부 : (730) 8082 ~ 4

제14회 東國人の 밤 성황리 열려

19일 호텔롯데서 祝賀牌수여등 結束다져

◎.....國內의 社會各界에서 東國의 긍지로 활동해온 同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속과 우의를 다지는 제14회 「東國人の 밤」 큰잔치가 1천여 동문이 참.....◎
◎.....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19일 오후 6시 30분 호텔롯데 크리스탈볼룸 (2층)에.....◎
◎.....서 성대히 베어져 창립 80주년을 맞는 全동국인의 和合과 힘찬 전진을.....◎
◎.....기약하며 다채로운 행사들로 가졌다.

母校 근로요원에 선물증정도

이날 행사는 鄭在哲회장을 비롯 文泰植수석부회장,禹鍾植·金聖莎·洪淑憲·東正·金東英·朴俊熙·俞光震·曹奎호회장과 宣普圭상인부회장등 회장과 僑京燕·前동창회장, 金東益·全宗植, 黃壽永교총장을 비롯한 보교 學成長 및 교직원, 재단 조첨인사등 全 동국가족이 자리잡고 있어 연회장을 東國愛로 가득 메운 가운데 도교 80주년을 계기로 東國中興의 새篇章을 향해 출연을 모우기도 결의했다.

中興故人사무국장의 사회로 전 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東國을 빛낸 동문들에게 축하해 수여가 끝난 후, 특히 80주년을 맞아 鄭在哲회장이 모교 260여명의 근로요원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東國發展의 위안길에서 뮤직히 일해온 송은 공로를 치하였다.

또 鄭회장은 회장단과 함께 전임 총장과 동창회장에게도 참석 동문들의 뜨거운 박수속에 감사의 선물을 증정했다. 이어 鄭회장은 인사말을 통

해 의과대학설립·1억 2천만원의 장학기금조성·4천여만원의 체육기금조성 등에 보내온 동문의 성원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동창회관 입대문양 및 교묘에 동문도서관 설치, 「東國文化賞(가칭)」제도를 제정, 5

<관련기사 6·7면>

會長주재 新舊회장단 회의

임원진노고 감사...현안숙의

鄭在哲회장은 12대 및 13대 회장단을 초청, 지난 12월 28일정 오 페라호텔 난초홀에서 新舊회장단會議를 주재하고 그간 노고에 감사하는 송년오찬회를 베풀었다.

12대 柳根昌·洪鳳來 부회장을 비롯 禹鍾植·金聖莎·洪淑憲·金東正·宣普圭·金東英·朴俊熙·俞光震부회장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東國文化賞(가칭)」제정 및 동창회관 분양이전에 관한 세부협의가 있었고, 朴辰熙·金容彩 부회장등

은 회관분양에 협찬을 다짐하는 등, 신년도 각종사업안을 깊이 있게 검토했다.

在日동문회 創立 첫 送年會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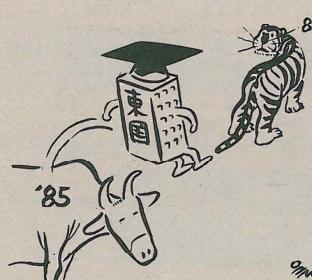
재 日本동문회 (회장=鄭在哲·한국 주민은행

職場동우회 送年會 풍성

정기총회겸해 活性화다짐

東友漫評

鄭雲耕



牛步에서 虎躍으로

80周年 기념주간 맞아
“海外支部대표 초청키로”

鄭在哲회장은 모교 80주년을 맞는 86년을 앞두고 각종 사업안을 발표하면서 해외각지부에서 대표 2명씩을 모교 기념주간에 초청할 뜻을 밝혔다.

이번 초청은 멀리 해외에서 보내주는 해외동문의 성원에 감사하는 뜻에서 80주년 기념일인 5월 8일을 즈음하여 있게

되는데, 본회에서는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초청작업을着手할 예정이다.

해외지부는 현재 11개支部로 써 유학및 이주동문에 정착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동문상호간 유대를 돋구어 해오고 있으며, 본회 및 모교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해태제과(주) 東友會(회장=崔聖煥·생산부장)는 지난 12월 18일 7시 한국관에서 정기총회겸 송년회를 열었다. 21명의 회원이 모여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새임원을 선출하여 회장에 孫鉉熙(71식공·개발부 차장), 총무에 沈相鶴(85통계·시장조사과)동문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同會는 송년연회를 갖고 각종 기념품증정등의 순서로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에게 우의를 나누며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興國生命보험(주) 興國生命(동우회 회장=柳國衡·총무부장)은 지난 12월 14일 오후 4시 영등포 음식점에서 정기총회겸 송년회를 열기였다.

47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는 간사에 謝楊鍾(71 경영·교육부과장) 총무에 朴明錫(81 식공·인사과부과) 회계에 朴相潤(80 경영·경리교주외) 동문들, 저 임원진을 유임시키고 각종 논의사항을 협의하고 이어 여흥순서를 가졌다.

서울신타운銀行 행 東友會(회장=金春顯·회장)은 지난 12월 10일 7시 거구동에서 30여회원이 모여 85년도 정기총회겸 송년회를 열었다.

총회에서는 현 임원진이 모여되었고, 東국인의 밤 운동상품 협찬 및 단체회비 납부등을 결의하고 회기 애애한 가운데 멀리 온 얘기를 나누며 친목을 도모했다.



東國文化賞제정·동창회관 이전等

“鄭회장, 80周東國史에 祝砲”

鄭在哲회장은 제14회 「東國인의 밤」에서 인사말을 통해 △신년도 2월에 동창회관 일대분야 이전 △5개부문의 東國文化賞(가정·상금 5백만원) 제정 △모교에 동문도서관 설립 및 체육기금의 확대 및 효율적 유용등, 사업안을 밟아하고開校 80주년을 전기로 東國대학진의 축포를 올렸다.

동경사무소장(?)는 지난 12월 20일 발기총회를 겸해 맘년회를 열고, 첫 임원진을 선출했다.

회장은 鄭在皓(62정외) 입시회장, 부회장에 김용택, 총무에 서승훈(81정외) 등 회내 각각 선출된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조직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맘년회를 갖고 첫모임에도 정점과 회기애애한 가운데 동경시에 거주하는 동문들의 우의와 발전을 다졌다.

를 제하기 위해 새 임원진을 구성, 회장에 張誠·회장 및 金善在(69법학·중 5가지집자장)총무를 유임시키고, 관문에 차지금 5명, 부회장에 차장급 7명, 간사들 2명에서 5명으로 보강했다.

이날 연회는 회원간에 쌓였던 정답을 나누며 선후배간의 우의를 나누었는데 張회장은 이 행사에 20안원을 기사하기도.

조홍은행 東友會(회장=林昌吉·行管부사부사장)은 지난 12월 12일 오후 7시 유키로 3가 인동장에서 85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열었다.

35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열린 총회에서는 임원진을 선출하여 부회장에 金宇燮(58경제·개봉동지점장) 陳宗繼(63경제·방산지점장), 간사에 李正煥(62 경제·연지동지점장), 총무에 申惺澈(64경제·본점영업부차장) 동문들을 각각 선출했다. 85년도 결산보고 등 중요논의사항을 토의하여 내년부터는 2회모임을 가져 활성화를 꾀하기로 결의.

친목·학과별 송년모임 성황

“선후배 情談나누며 우의다져”

교교 출신 회고회 惠門會(회장=金鍾聲)은 지난 12월 17일 오후 7시 거구장에서 40여명이 참석하여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123명의 방내한 회원을 중심으로 활성화를

사회 개발학과 동창회(회장=金正一·류니언 대표)는 지난 12월 14일 오후 5시 진고개에서 5

차정기총회를 겸해 송년회를 갖고, 전임원진을 유임시키고 선후배간의 우의를 다지는 여정 순서를 가졌다.

농어생물학과 동창회(회장=金鍾聲·朱富伊)는 12월 12일 오후 6시 반장 강동 우래에서 제 2 차이사회를 겸해 송년모임을 가졌다.

20여명의 회장이 회장이나 회장부회장이 참석하여 열린 이날 회장에서는 신년도 사업계획이 종점적으로 논의되어, 이를 50명으로 확대하며 최근출업생(慶大)까지 조직을 확장키로 결정했다.

동국나남회(회장=東國山岳會·장금錦·洪命衡·徐成虎) 대표이사는 지난 12월 12일 오후 6시반 배님민관 913호 슈베르트홀에서 崔載九(52국민)·金鎮福(52정치) 등로동·연대 회장을 비롯하여 70여회원들이 부동반으로 모여 제 1회 東國 산악인의 밤을 개최했다.

‘85 결산
‘86 전망

80年史의 새장…東國의 내일은 밝다

□ 사업 경과 및 결과

▲ 동창회관 건립 추진 「동창회관 건립 추진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모금 운동을 전개, 각 지역·직장 및 해외 동문들의 협조와 文泰植 수석부회장(4천만원 회사) 등 여러 동문들의 기부금으로 새해 2월경 분양 입주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 학교 흥보 및 기념 사업 참여 교가·응원가를 카드로 취입, 보급하고 東大新聞社의 「사진으로 본 東國 80년」 자료 시장 수집에 적극 동참하는 등 각종 홍보 사업 지원.

▲ 東友會報 발간사업 지원 1호(3월) 특집호(칼라 4면 포함 16면 발행) 제작을 계기로 12년 기준 가로쓰기 체제로 전환한바 있으며, 기획기사 계재, 새회원 적극 발굴 등 명실공히 「전동국인의 지상 교교」로 내실화하여 신년으로 잡간 10주년을 맞았다.

▲ 재학생 장학 사업 70주년 징기념 글, 하기별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문들의 협조로 현자 1억 2천여 만원의 장학금 기증을 확보하고 있으며 더욱 적극적인 기금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 채무부 지원 사업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이 부문은 지난 출체연맹전에서 야구부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축구 후원회(회장=閔栢植)에서는 3천 7백 50만원의 후원금을 본회에 기탁하는 등 체육 진흥과 교육 선양을 위해 전 동문이 전력해 왔다.

□ 본회 각종 행사

▲ 신년 인사회 1월 9일 본회 입원 모교 간부 등 1백 5십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롯데 호텔에서 개최, 齊飛東國의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 국회 의원 당선 축하연 3월 8일 12대 의원에 당선된 18명 동문이 축하연이 열려 3백여 명의 동국인이 참석했다.

▲ 제47차 정기 회의 4월 26일 모교에서 입원, 이사 등 1

乙丑年 1985년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끝났던 한 해였다. 새해 벽두부터 종국 80년의 영광을 헛발 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잇달았으며, 전동국인의 속원이던 의과대학 신설을 비롯, 경향나저에서 숨은 동국인들이 기세하고, 각 지부들이 앞다투어 창립회에 따라 새해에는 7만여명의 회원으로 늘어날 예상으로 있어 85년은 정통민족 사학의 거대한 뿌리를 드러내는 일자적 역할을 충분히 해낸 한 해였다. 이를 해동안 본회 및 모교, 각 동문들의 활동상을 조명하고 그 공과를 기록해 본다.

▲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제13회 임원선임, 84회 계년도 결산감사보고, 85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심의를 가진 뒤 80주년 기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채택하고 전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 제15차 정기총회 11월 16일 모교에서 2백여 동문이 참석, 47차 이사회이 결의사항인 韓 회장유임안 및 13회 회장단선임안 결산감사보고 등을 통과시킨 후 동국관로비에서 13대 임원취임 축하연을 가졌다.

▲ 제13회 회장단 회의 11월 2일 韩 회장, 文泰植 수석부회장 등 회장단과 許文秀 감사 등 연석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모교와 본회 발전에 관한 현안을 힘써.

조직 확대·장학기금 확충 등 활발 "동문은 乘勝長驅, 母校는 日就月將, 올해 東國文化賞·도서관 등事業

▲ 제14회 東國人의 밤 12월 19일 롯데호텔에서 본회 입원, 모교 간부, 각계 동문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려 결속과 우의를 다지며 東國 80주년의 초석이 될 것을 다짐.

□ 조직 확대

▲ 15개지부 창립 84년 신탁 은행, 통계 학과 등 18개지부가 새로 창립됨에 이어 금년에는 불교학과(회장=金漢秦, 59), 국방 대학원(회장=金錦一, 58법학) 성북구(회장=金光錫, 68경쟁) 경주대 국사학과(회장=田萬成, 83) 등 15개지부가 창립됐다.

▲ 지부 협회자파와 이법사업으로 본회의 지부간의 관계가



시진은 본회 정기이사회 광경

더욱 긴밀해졌고 지부별 독자적인 사업으로 18개지부·본부·해외지부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 본부 간연금사무국장이 지난 6월 미주 7개지부를 순방, 해외동문들을 통하여 하나됨을 확인했으며, 재독 동문회, 뉴욕지부 등의 모서찬조 등으로 해외지부도 적극적인 자체 활동을 하고 있다.

▲ 7만동국인 오는 86년 2월

의 회위수여식에서 단행하는

신임동문들과 그간 본회에서 파악한 새발원 동문들을 할애 새해부터는 7만동국인으로 어 저력을 과시할 수 있게 된다.

□ 財政기반 강화

▲ 해외부회비 및 임원회비 정착화 각임원회비를 솔선 남부기로 하였으며 조직 강화와 아울러 단체회비 납부를 강제하고, 년회 비제(1년 = 1만 원) 정착을 적극 추진 중.

▲ 회비 납부 장려방안 본부에 첨부된 은행지로 카드를 활용하고 재학생 아르바이트제를 도입,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전동문들의 적극적인 증참을

기대 중이다.

□ 각계 동문의 활동상

▲ 제12회 국회의원 당선 鄭在哲(52정치·정무장관) 회장, 崔載五(52국문·국민당·신민당·원내총무) 부회장 등 18명의 동문이 당선되고 이어 崔炯佑(63정치·신민당부총무) 동문들이 이 당요직에 선임됨으로써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 사회·財界 등 기자회견 權重聲(49·해전) 동문들 21명의 동문들이 훈·포장 수상했고, 崔聖鶴(52·국문·광주교대 학장) 黃龍雲(54·경제·부산은행장) 李鍾萬(53경제·대한부자금 은행장) 金翰周(67대원·경기대 초대총장) 金彥會(70·대원·산림청장) 洪澈子(55·정치·한국 여성단체협의회장) 동문들이 영전 취임하는 한편, 각종 학·예술·교육·경제·문화에 에서 동문들의 활약이 특히 두드러진 한해였다.

□ 모교 발전 상상

전동국인의 숙원 「의대 설립」이 이루어져 86년 첫 신입생을 맞게 됐으며, 야구부, 농구부의 전국 제패로 동국의 위용을 온 누리에 과시했고, 吳綠圃(73행원) 이사장 취임, 80주년 기념사업회 창립, 도서관 증축 개관, 나산수련장 개장, 부총재 도입, 불교자료실 설치를 비롯하여, 충학상회 부활을 선두로 학생활동이 두드러져 내 외적으로 굳건한 모습을 보이며서 모교 80주년의 새 출발에 바치를 기렸다.

□ 86년 전망

새해 본회의 주요 사업 계획은 모교 80주년 기념사업에 적극 동참, 기금을 조성하여 모교에 동문 도서관을 설치하고, 「東國文化賞」(기행원)을 제정, 동국을 빙 낸 동국인들에게 시상표로 추진하며, 의대 설립 및 불교 종합병원 설립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동창회 사무국이 전을 마무리하고, 각 지부의 각종 사업을 지원하여 본회와 지부간, 동문 상호간의 유대를 돋구기로 하는 데에도 역할을 두기로 했다.

1986년, 東國 80년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선이다.

이에 따라 이미 성숙기에 들어선 모교의 본회는 서로 깊은 연대감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앞에서는 東國」 그 힘찬 미래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言童賀新年

曹尹俞朴柳朴金宣金洪金朴禹文崔鄭
鎰光梭來完東晋東淑容聖辰鍾泰載在
奎均震亨馨一英圭正子彩涉熙植植九哲

제13대 會長團印

友情의 손 맞잡고 東國人 결속다져

송년회 풍성 반가운 再會... 東國熱氣 가득

◇全南支部

전남지부(회장=崖聖鑑·광주 교육대학장)는 지난 12월12일 오후 7시 광주관공호텔에서 부부동반으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동국인의 밤 행사를 기렸다.

회장인사·감사패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에 유거(63기생) 등 문이 참석해 도서를 기증하기도。

◇慶北支部

慶北支部(회장=全泰成· 대영직업 시장) 제6회 동국인의 밤이 지난 12월17일 오후 6시반 시내「라리강성」에서 부부동반으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소재문화제 경기부지부 발전에 애써온 대학교수동문회·한의학과 대구동창회 등에 감사패를 증정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연회에서는 각계 동문들이 회사한 기념품을 증정하고 장기자랑등의 어울음을 즐겼으며, 내년부터 경주캠퍼스 신입생에게 수여할 장학사업을 위해 26만원의 졸속도금也被 기도。

◇釜山支部

釜山支部(회장=金容彩· 본회 부회장)은 85년도 정기총회겸 동국인의 밤 행사를 지난 12월 20일 오후 6시 활실에식장에서 개최했다.

부부동반으로 1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에는 새임원진을 선출하여 회장에 차재우(57기생)·이상선·신병동(株) 대표이사(60기생)를 선출했다.

1부순서에서는 본회 宣晋圭(金圭)부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으며, 2부순서에서는 경주수집·장기자랑등 여흥시간을 즐겼다.

새로 선출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李種源·金容彩·辛朔教·邊水傑

▲부회장=南基碩·吳壽玄· 김상호·金大商·高厚석·조태호·金英煥

▲감사=金鍾漢·孫八洲

▲간사장=김성락

◇全北支部

全北支部(회장=金三龍·워파대 부회장)은 '85년도 동국인의 밤'이 지난 12월20일 오후 6시 선주 고아호텔무궁화회(2층)에서 부부동반으로 열렸다.

회장단을 비롯 이리·정주·군산·김제支會임원들 90여명이 모여 단합과 친목을 다지며 시종 따뜻한 友情를 나누는 이날 행사에서는 유공동문 표창이 있었고, 金三龍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동문가족들이 한데 어울려 담소를 나누며 만찬을 함께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각계 동문들이 협찬금과 기념품을 보내왔고, 본회에서는 申益炫사부

국장이 참석하여 행운상품을 전달하고 모교 및 본회소식은 전했다.

◇東國敎友會

부산 東國敎友會(회장=南基碩·선화여상교장)은 지난 12월 28일 오후 6시 국제호텔 천마홀에서 부부동반으로 맘년회를 열었다.

부산과 경남에서 교직에 몸 담고 있는 100여 동문들의 모임인 「同會」은 이날 행사 통해 쌓았던 회포를 풀며 우의를 나누며 더욱 밝진하는 友會가 될 것을 다짐했다.

◇忠南支部

店南支部(회장=朴鍾允·국제 특수금속(株) 대표) 정기총회 및 동국인의 밤 행사가 지난 12월 20일 오후 7시 대전시 휴리테스트관에서 개최됐다.

李在福(43회전·보문고교장)

명예회장을 비롯 70여명의 회원이 모인 이날 행사에는 전안지부·문양(아산) 지부·중동선화교·강호석총무·서천지부(김은구부회장) 등에서도 참석하여 자리리를 빛냈으며 본회에

놀이경기가 열려 흥을 돋우었다.

◇濟州支部

제주지부(회장=康大元·판남 대학 객원교수) 85년 동국인의 밤이 지난 12월 28일 오후 7시 부일호텔에서 열렸다.

부부동반으로 50여명이 참석, 성황리에 개최된 이날 행사는 각계 동문들의 협조로 성대하고 다채로운 행사가 베풂어졌으며, 새해에도 더욱 굳은 결속을 다지며 산호·발전하는 한해가 되자고 다짐했다.

◇嶺東東友會

자경 嶺東東友會(회장=鄭瑞和·전국은행연합회 삼부이사)는 제3차정기모임을 겸한 송년회를 지난 12월 6일 오후 7시 국립대박관에서 2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鄭瑞화와 회장은 인사를 통해 同會의 활성화의 기금획보에 힘써나갈 것을 다짐했고, 매번 참석해오며 이날 행사의 스포서를 맡은 李範俊(79회원·국회 의원) 고문의 축사, 축하순서,



先後輩 한데 어울려 會活性化 도모

獎學基金 조성 등 母校 발전 기여

서는 申興來(香谷)사가 참석, 행운상품을 전달했다.

총회에서는 신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적으로 논의, 매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세를 확장키로 하고, 동문수집발행·장학기금조성 및 제3회 동국인제 대회를 부부동반으로 치루를 등을 최종 확정했다.

지역동문과 특유의 정감이 넘치는 이종 순서에서는 장기자랑·행운상품추첨 등을 통해 선후배간의 우의를 돋우고 했으며 즉석 장학기금모금에 40여 만원의 성원이 담겨하기도.

◇당진東友會

당진東友會(회장=南常祐·고려대학교교사) 85년 송년회가 지난 12월 23일 오후 6시 읍내체육장에서 열렸다.

을축년을 보내며 동문간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유통이 민속

경과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회원들은 同鄉과 同窓의 두터운 정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기록했다.

금년 5월에 창립한 同會는 그간 「영동東友會」 2호회를 발행하는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유기고화 배움 터를 함께한 회원들이 모여 친형제같이 친목을 다져온 유일支會.

◇城北同門會

城北同門會(회장=李康壽·삼선 2동장)은 지난 12월 10일 오후 6시 울림피아레스토랑에서 제2차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새회장에 金光錦(69·풍년각대표) 등 문이 선출되었고 결산보고 및 각종 사업경과보고가 있었습니다. 申浩洙(61법학·금강월간(校) 대표이사) 동문동 6명의 신임회원을 맞이하였다.

東國의 두 가지 큰 特長을 들라면 그 역사와 전통으로 보아 불교와 문학을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佛教쪽은 필자가 감히 언급할 자격이 없지만 文學쪽은 필자가 東國文學人會 입원의 한 사람이나 만큼 동국문학의 진면을 위해서도 한두 가지 제언은 가능하지 않은가싶다.



金容彩
△印學
△獨學
△專研
△文學
△學術

도 기백만원 가지고 월일 아니라 수억원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들이었다. 그런데 그 일정난 돈이 東國文學인들의 가난한 호주머니에서 나올리도 없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有力한 동문들에 게 안없이 살게 (?) 하기도 힘든 데한 실점에 놓인 것이다.

몇몇 입원들이 취지문, 인사장, 사업계획서, 芳名錄 등을 들고 몇몇 有力분들을 찾아나타니 그간 제 품에 치지 않고 스스로 단단하여 좌절하고자 했던 것인가. 그자 이제 누구를 탓할 것인가. 東國文學은 잘해

산적한 事業案에 추진력 미흡

"외로운 작업 속에 목마른 東國文學"

文學中興 위해 母校愛 모아야

東國文學人會 새 입원진이 중심이 되어 소위 東國文學中興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보이려고 했지만 그 자체로 힘들었던 것이다. 아버지 이에 전폭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有力분들이 많았던 것이다.

그 주요사업계획으로는 「東國詩集」의 속간, 東國文學賞제 및 시상, 「東國」誌의 복간 東國文人동산의 건립, 故人諸碑銘立전,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母校창작교실의 지원을 실로 보람찬 청사진이 하나풀이 이니다.

따라서 임원들은 수차의 연석회의도 갖고 東國文學中興 추진위원회도, 밤낮 시켰으며同一同門에 상당수의人士들

에게 고문대·제작·理事·총무·총설 실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보았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은」이었다. 돈

보자고 자신의 시간과 교통비마저 텁惜하고 끌어다닌 文學會 간부를 탓할 것인가, 아니면 이에 전폭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有力분들을 탓할 것인가. 솔직히 의진 방에서 영통한 언어나 매만지기를 즐기고 고파를 맡으며 고지하고 씨름이나 활줄 이는 순박한 한문人们들이 무슨 큰 추진력이 있겠는가.

그러나 6萬 東國人이다. 그들이 좌절하고失望했다고 하여 과연 告解할 것인가. 밤이오는 새해부터 그들에 게 새로운 용기와 추진력을 불어넣어줄 계정은 없는가. 東國文學의 좌절은 東國文學의 좌절을 白描할 것인 달이다. <현대大新聞主幹>

는 이날 모임을 통해 86년도 東友會을 조직하고 앞으로 동회의 회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을 확정했다.

정답을 나누며 친목도모의 하루를 험겁에 보내며 이날 행사에는 특별히 참석한 閨里(60기생 대표이사) 등 문이 스폰서를 맡아더욱 뜻깊은 모임을 가졌다.

◇經大院同窓會

경대대학원 동창회(회장=崔奎·외교학원 대표)는 85년도 송년의 밤을 지난 12월 8일 오후 1시 63대 한생 명령팀 국제회의장에서 열고 다채로운 행사

를 개최했다. 부부동반하여 350여명의 동문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11개팀이 출전하여 교기경창대회를 갖는 東國愛를 퍼기 나누었는데 옆에 대상을 權公雄(19기·醫學·권공웅정협과원장)同會부회장 가족이, 최우수상엔 申益炫·문화사무국장, 우수상에는 金天冰(66농학·11기·세원 건업(株) 대표이사) 등문 가족과 徐相璣(7기·장간학원 대표) 등문가족이 각각 수상했다.

교 80주년을 맞는

東國人의 決議

우리 東國人은 민족근대사와 애환을 함께하며, 민족사의 주역으로서 교육구국과 민족문화창달 및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섰다. 이에 乙丑년을 보내며 교 80주년의 영광을 안은 우리 동국인 모두는丙寅년 새해를 맞으면서 학교·재단·동창회의 일치 단결을 통해 삼寶의 정재를 모아 창학원 민족사학의 숭고한 이념을 구현, 승화시키고, 나아가 東國雄飛의 선봉이 될 것을 굳게 결의한다.

- 우리 東國人은 동문간의 우의증진과 함께 그 사명감을 새로이 하여 동창회 발전을 위해 기일총합심협력한다.
- 우리 東國人은 의과대학 설립을 전기로 동국을 재정립, 교 80주년의 새역사를 향해 총력을 경주한다.
- 우리 東國人은 동국전통의 새시대를 여는 80주년을 맞아 학교·재단·동창회의 힘과 습기를 모아 혼연일체가 되어 내일의 동국을 향해 운명정진한다.
- 우리 東國人은 어릴고 큰 동국정신과 7만의 저력을 바탕으로 전학이법을 발휘, 사회봉사에도 활동의 범위를 넓혀 동국의 역량을 극대화한다.

1985년 12월 19일

해를 거듭할수록 경향각지의 많은 동문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성대하고 뜻깊은 결의의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85년도 「제14회 東國人的 밤」은 지난 12월 19일 오후 6시 30분 호텔롯데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려 鄭哲회장과 文泰植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倪京烈·前桐蔭회장, 黃壽永교장, 金東益前총장을 비롯한 모교간부, 경향각지의 동문들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으로 80周年을 맞는 모교의 荣光을 다짐했다.

1 천여동문 참석 성황

申益炫본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축하수여·초청인사 및 교내근로요원 선물증정, 회장단 및 모교간부 소개회장인사, 축사, 새해 결의문제

액, 교가제창문의 순으로 본회의를 마치고 東國中興 케이프란과 함께 연회에 들어가 장기자랑, 행운권추첨등을 미치고 만세식장을 끝으로 모든 행사들은



▲鄭哲회장이 黃壽永교총장·金東益前총장을 초청인사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榮譽의 祝賀同門

◇ 감사패

- ▲朴道根 (65학) = 후배육성
- ▲崔楨植 (75학) = 후배육성
- ▲無盡歲 (64학) = 건학이념+현

◇ 공로패

- ▲黃福東 (55학) = 동대신문동인회장
- ▲林昌祐 (56학) = 조종은행동우회장
- ▲夏永泰 (58학) = 경북지부 부회장
- ▲李相鎮 (60학) = 전남지부 부회장
- ▲朴彰熙 (60점차) = 농업진흥공사 동우회 회장
- ▲劉成鍾 (61점차) = 전북지부 부회장
- ▲鄭敬和 (62학) = 충남지부 부회장
- ▲李正略 (62경계) = 한국증권내체결제동료회장
- ▲金勝有 (67점외) = 東一會회장
- ▲黃善煥 (67학) = 강정원동문회장
- ▲金光鎭 (69경계) = 성복동우회장
- ▲南金光 (69학) = 조선백주동우회장
- ▲金正一 (83학) = 사회개발학과 동우회장
- ▲朴榮郁 (82학) = 국방대학원 동우회 총무
- ▲具滋善 (79경원) = 경영대학원 동창회 부회장
- ▲金德洙 (71분석) = 교법사 동우회
- ▲金鍾聲 (49학) = 혜문회 회장

◇ 각종포상

- ▲金萬淵 (62경계) = 내무행정최우수상을
- ▲趙誠誠 (56경계) = 홍조근정훈장
- ▲金容聲 (61학) = 홍조근정훈장
- ▲柳在川 (60경계) = 홍조근정훈장
- ▲鄭泰洙 (73학) = 홍조근정훈장

- ▲南基碩 (61학) = 국민훈장 목련장
- ▲朴先生 (65불교) = 국민훈장 동백장
- ▲趙承哲 (59농학) = 석탄산업훈장
- ▲朴玄櫟 (75행복) = 고성대상 자비상
- ▲李錦國 (57영문) = 홍조근정훈장
- ▲白亨祚 (85영원) = 홍조근정훈장
- ▲權重聲 (49학) = 홍조근정훈장
- ▲玄商鉉 (77행복) = 홍조근정훈장
- ▲全判溶 (77행복) = 홍조근정훈장
- ▲南澤善 (57법학) = 홍조근정훈장
- ▲李承鉉 (88영문) = 보국포장
- ▲許弼國 (60영문) = 홍조근정훈장
- ▲趙正煥 (49학) = 새마을훈장 노련상
- ▲林和 (55학) = 새마을포장
- ▲具恩洙 (85경행) = 경찰간부후보생 졸업식 대통령상
- ▲金城漢 (82체) = 프로야구 MVP

◇ 엄정·추임

- ▲崔聖錦 (52국문) = 광주교육대 학장
- ▲李鍾萬 (50경계) = 내한한우기금(株)내 표이사
- ▲黃龍慶 (54경계) = 부산은행장
- ▲金天壽 (57경계) = 국민은행부행장
- ▲宋寶烈 (57경계) = 제일은행전무이사
- ▲金在基 (60경계) = 한국주택은행 부행장보
- ▲崔阿祐 (63점외) = 신한미주부부총재
- ▲金翰周 (67학) = 경기대학교초대총장
- ▲金璇會 (70원회) = 산림청장

◇ 고시합격

- ▲金尚一 (83점외) = 제19회외무고시
- ▲黃震旭 (84법학) = 제27회사법고시
- ▲南基萬 (무역 4년) = 제29회행정고시
- ▲尹鍾安 (59경계) = 漢陽大·경영학부사
- ▲吳有善 (61경계) = 교육학부사
- ▲朴榮吉 (64법학) = 필리핀 산토토나스

◇ 학위취득

友誼·結束 그리고

제14회 東國人的 밤 詳報

경향각지

마무리였다.

80주사업 계획 밝혀

이날 鄭哲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으로 80주년을 맞는 모교의 오랜 속임이던 習科大學 신설은 교과와 재단, 동창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로 그 공로는 바로 동문 여러분의 것이니라며『그동안 동창회에서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1억 2천만원을 조성, 대학적인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계속 확충해 나아가고 있으며, 제육후원회에서 그

우리는 하나 영원한 東國人. 가슴 깊은곳에 마음의 故郷 東國을 새긴 모oen이의 가슴은 뜨거웠다. 언제 어디서건 모교에『대한 금지를 간직하고 점령을 불태우는 우리들은『제14회 東國人的 밤』 큰잔치를 맞아 백발노선배에서 폐기왕성한 후배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의기와 투합, 東國榮光을 다짐하는 대하고 함께 승화시켰다.

동안 도급한 4천여만원을 본회에 기탁해, 체육진흥기금으로 육성, 발전에 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현재 학교에 있는 동창회사무실을 독립 이전하는 문제도 거의 매듭난계에 있다. 이렇듯 모교와 동창회가 날로 발전을 거듭하는 6만동문 모두의 성원 덕택이다』라고 말하고, 동창회의 모교 80주년사업에 대해 성금을 통해 기금을 조성, 모교에 동문 모교 관을 설치하고, 『朝鮮文化賞 (기철·상금 5백만원)을 제

정, 건학이념, 인문, 사회, 자연과학 및 문화예술 등 5개부문에서 동국을 빛내 동류, 교수등에게 시상할 계획임을 밝히고, 「내년에는 회장단을 비롯한 동창회사무실은 회장단을 위원회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이어 축사에서 黃壽永총장은『지난 해동안 모교는 안정기를 확보하고, 대방으로 많은 발전을 시도해왔다』고 전제하고 『그중 수원월이던 이재신 설로 웅비동국의 새로운 전기

19일 호텔롯데서… 축하폐수여

東國文化賞·동문도서

를 맞게 되었다. 이는 바로 동창회의 협조와 지원 덕분으로 양으로 불교종합병원의 건립에도 많은 성원을 기대한다』며 야구와 농구의 잇단 우승, 최신의 전자경기경, 컴퓨터의 도입 등 모교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80주 모교의 발전을 위해 동문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총 91명에 축하·공로패

東國을 빛낸 동문 축하순서에서는 후배육성과 건학이념 구현에 공이 큰 朴道根 (65학·선경株 상임이사) 동문동 3명에게 감사패가, 金鍾聲 (49학·전·혜문회 회장) 동문동 각각 위동우회와 본회발전에 공이 큰 17명에 금보배가 수여되었으며 重慶 (49학)·충북도경·경부·장·노주근정총장, 동문동 각종 수상자 21명, 崔炳佑 (63점외·신민당·부총재) 등 2명에 축하패가 주어졌다. 金高一 (83경외·제19회 의무고시합격) 동문동 각고시합격자 3명, 尹鍾安 (59경계·교과교수·경영학부사) 동문동 학위 취득자 38명에게 축하패가 주어지는 등 91명의 「東國을 빛낸 동문」에게 축하·공로패가 회장단에 의해 수여되었다.

제13대 회장단소개

이어 회장단 및 모교간부·초청인사 소개에서는 지난 11월의 「제15회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文泰植수석부회장과 15명의 회장단과 倪京烈·前桐蔭회장, 黃壽永교총장, 金東益前총장 및 金鍾聲부총장을 비롯한 모교간부, 혜문회 회장단에 의해 수여되었다.

▲ 전을
교간부
益前
慧文회
大典
 모교
 또한
이 모
은 모
소원,
 티기
해 동
 회장회
서울과
남자
등 해
 전
 새해
「東
 있게하
야 6
 周國

東國발전 다짐

1천여동문参席·성황리에 열려



◇교의 상정인 고기리상 열음조각

결의문 채택 등 中興다짐 관등 80주 계획 밝혀



80주를 맞는 교의 무궁한 발
디짐했다.

들이 소개되었으며, 금동
장증 초청인사들에게는
기 마련한 선물을 증정
하였다.

근로요원에 선물
그동안 이름도 빛도 없
발전을 위해 숨은 노
임이며 가장 수고가 많
의 수위, 운전기사, 청
교원수, 사환, 경비원, 기
내원수, 고로요원들을 위
하여 전체의 이름을 빌어 통
기 마련한 선물을 전달은
경주캠퍼스의 근로요원
44명, 여자 1백11명
55명에게 守衛장을 통
하였다.

결의문 4개항재택
한편 이날 행사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동문회 유기명동문,
뉴욕동문회 崔武男 동문, 스웨
덴동문회 강대모 동문회 해외
동문들이 참석, 「東友之父」高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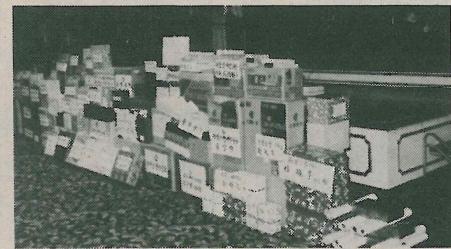
同好」를 실감케 하였으며,朴來春
金完式 朴英錫 崔周錫 李東雨
朴廣度 沈明淑 金南善 金鍾赫
金容政 金萬淵 朴鍾允 朴承熙
金成形 河在龍 金鎔泰 趙炳默
李海震 申允杓 樂善道 宋龍仁
金英弼 胡教純 金南根 宋日權
金容成 李鶴容 崔鍾奇 柳炳教
崔榮範 朴泰旭 金用泰 鄭洲慶
朴壽哲 任元甫 최종완 동문동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방동
문들이 대거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밝게 주기도 했다.

또한 장기자랑에서 사우디아
라비아 동문회를 대표해 이날
참석한 유기명동문은 「선구자」
를 불러 홍을 들판으로 향하고 있다.
이어 명창으로 소문난 樂善道
동문들이 잊어버린 30년 동세
곡을 부르며 즉석에서 동국의
무궁한 발전과 「동국인의 밤」
을 축하하는 노래를 지어 부
르자 삽식동문 모두가 새삼장을
요구하며 박수로 환호, 한국을
더 부르후 해운상품추첨을 해
한일은행동우회에서 제공한 「카
네이션통장」(부기명 10만원입금)
을 추첨하였다.

장기자랑에는 많은 참석동문



▲鄭在哲회장·黃壽永총장·金東益前총장·金東英 부회장·文泰植수석부회장들이 축하케이를 자르고 있다.



▲各界동문들이 협찬한 풍운상품들

들로부터 신청이 쇄도하였으나
송충산 (70·경제) 동문등 다섯
동문단 노래를 하고 골이어
행운상품 추첨에 들어갔다.

푸짐한행운상품 추첨

由益은행무국장의 사회로 진
행된 행운상품추첨에는 본회임
원, 모교간부, 각급 동우회에서
답사한 칼라TV, 영광고, 대
명술수, 양복·양장지 등 2백
50여점의 상품을 놓고 번호가
호령될 때마다 합성과 축하의
박수소리로 분위기가 한층 고
조되었다.

이날의 최고 행운상품인 郑

회장이 내놓은 1인치 음성다
종형 칼라TV는 郑회장이 직
접 추첨, 金五成 (65학파·종
금속공업株 기획조정실장 삼무
이사) 동문에게 행운이 돌아갔
으며, 주택은행동우회(회장=
鄭夢鎮)에서 추첨한 14인치리
모든 칼라TV는 도쿄 학생과
직원인 朴昇鍾 (82학파)동문에
게 돌아갔다.

한편 이번 행운상품 협찬동
문중 최고는 단위동우회로는
주택은행동우회(칼라TV), 개인
별로는 산부동문회 회장 金光
鎬 (69경행·종문각대표)동문으로
20만원을 협찬하였다. <京>

幸運賞品協賛內역

◇회장단

▲鄭在哲회장 (52정치) = 은성다종 16
인치 칼라TV 1대
▲崔載九명예회장 (52국문) = 자필포
구 1점
▲禹鍾植 (52경제) = 치약 2박스
▲朴辰熙 (52경제) = 5만원
▲金聖彬 (53정치) = 양복지 2작
▲金東英 (60정치) = 재벌이·라이타
세트
▲朴俊亨 (63경제) = 생선포세트 10점
▲尹鎰均 (69행정) = 키친세트
▲唐 奎 (77경원) = 10만원
▲許文秀 (57경제) = 10만원
▲柳根桓 (49예전·12대부회장) = 10
만원
▲金鎔善 (61경제·12대부회장) = 가
방 1점

◇상무이사

▲李能熙 (65상학) = 리도션풀세트 5점
▲曹重根 (65상학) = 크리스탈세트
▲禹順伊 (60정치) = 식수용기
▲金洛天 (79원원) = 카펜다 1천부·
손자병법 10집
▲李宗翰 (58법학) = 커피잔세트
▲金復慶 (51정치) = 염지버섯
▲趙榮成 (52경제) = 양복지 1작
▲黃龍雲 (54경제) = 10만원
▲鄭熙喆 (80경원) = 5만원
▲朴三善 (55법학) = 3만원
▲安澈奂 (52경제) = 10만원
▲鄭達洙 (58경제) = 전화기
▲權錫忠 (70정치) = 5만원
▲南相龍 (49경원) = 5만원
▲宋寶烈 (59경제) = 10만원

◇이사

▲金完式 (71농학) = 명한정 3박스

▲辛敏善 (63경제) = 벽시계
▲朴翊柱 (61정치) = 전화기
▲韓相根 (60정치) = 애플세트 10점
▲張忠準 (61경제) = 벽시계 2점
▲鄭大鎮 (63법학) = 벽시계
▲李正路 (62경제) = 은수저세트
▲金泰佑 (63학파) = 석시카렌다
▲安重五 (63영문) = 5만원
▲張明根 (64법학) = 살풀세트 2점
▲金天壽 (57경제) = 10만원
▲崔在熙 (80경원) = 10만원
▲金丙澤 (68법학) = 살풀세트 2점
▲李尙均 (69원원) = 5만원
▲李英駿 (59법학) = 3만원
▲成百宰 (66경영) = 3만원
▲李範壽 (79원원) = 5만원
▲明華靈 (81원원) = 5만원
▲金光鎬 (69경영) = 20만원
▲崔禪植 (75경정) = 10만원
▲李鍾萬 (53법학) = 5만원
▲郭正獻 (62경제) = 전기난로
▲尹當富 (63상학) = 5만원
▲金星台 (79원원) = 3만원
▲金在澤 (49전진) = 피피구기
▲朴明根 (82경정) = 카펜다 1백부
▲權曉潔 (71경영) = 도서 50권
▲李允根 (79원원) = 비료도 5점
▲姜成澤 (73경영) = 타월세트 6점
▲金旺植 (76경정) = 객실구조 5개
▲朴富煥 (63상학) = 구두티켓

◇단위동우회

▲한국부자신사단동우회 = 휴대용 가스
렌지
▲政經동우회 = 벽시계
▲조선족주동우회 = 맥주 15박스 청주
5박스
▲한일은행동우회 = 카네이션통장 (10
만원권)
▲東英會 = 5만원

▲민산株동우회 = 수저세트 2점

▲全南부支 = 도자기 1점
▲동국산악회 = 머니 1점
▲경주동창회 = 벽시계
▲忠南부支 = 도자기 1점
▲철도청동우회 = 전기밥솥
▲東女會 = 5만원
▲동송회 = 벽시계
▲신탁은행동우회 = 5만원
▲농어촌개발사업총동우회 = 5만원
▲惠門會 = 5만원
▲조홍은행동우회 = 10만원
▲주택은행동우회 = 칼라TV 1대
▲58학과동우회 = 3만원
▲慶北支 = 양복지 1작
▲한국전력동우회 = 5만원
▲경제과동창회 = 5만원
▲營會 = 4만원
▲동진회 = 5만원
▲국회동우회 = 5만원
▲농업진흥공사동우회 = 5만원

◇교묘간부

▲재단사무국 = 수저세트 5만원
▲黃壽永총장 = 50만원
▲金鍾遠부총장 = 10만원
▲金仁鷄부총장 = 5만원
▲李範澈대학원장 = 가습기 1점
▲閔丙天협집대학원장 = 전기난로
▲錢昌源경영대학원장 = 3만원
▲李智冠교육대학원장 = 5만원
▲張漢基교과대학원장 = 3만원
▲中國社員대학원장 = 벽시계
▲趙旺基경상대학원장 = 벽시계
▲金期圭공과대학원장 = 3만원
▲朴珍錫이부대학원장 = 선물세트 2점
▲裴鍾根사법대학원장 = 카페인세트
▲金鍾貞기획조정실장 = 3만원
▲俞光澤한생제작자 = 5만원
▲南都冰泳총무처장 = 10만원
▲朱宗桓도서관장 = 보온도시락 4점
▲崔世和박물관장 = 전기밥솥
<無順>

새해 内閣개편서 두同門 長官 유·취임

政務長官 鄭 在哲 회장



鄭在哲(52정치) 본회회장이 1월 7일에 있은 내閣개편에서 政務제 1장관에 임명됐다.
3대째 본회회장을 맡아온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鄭동문은 지난 12대 선거에서 전국 3위의 득표율로 당선(속초·양구·인제·고성)된 후 野議과의 대화친구인 政

務長官의 증책을 맡은 이에對話政治를 주창하며 활약, 그 정치역량을 인정받아 이번에 유임된 것。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한일은행장, 민은재정위원장, 국회에 걸친 재무위원회장을 역임. 부인 錢金周여사(淑大동 창회장)와의 사이에 1男2女를 두고 있다.

總務處長官 鄭 寬溶 동문



鄭寬溶(58법학) 동문이 이번 개각에서 총무처장관으로 발탁됐다.
鄭동문은 23년간 총무처에서 근무하면서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직업관료로 지난 80년 국保委비산대책 상임委사무처장, 81년 中央선관委사무처장을 맡아, 제5공화국수립과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82년부터 청와대 司正수석비서관의 중책을 맡아온 鄭동문은 내실있는 업무 추진을 하기로 정평이 나았다.

평소 모교와 동창회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온 鄭동문은 만능스포츠맨으로 고전을 아예 남달리 조예가 있다. 부인 崔孝順여사와의 사이에 2남2녀를 두고 있다.

경찰계 중진 두同門 次官級 영전

仁川市長 朴培根 동문



朴培根(67법학) 동문이 치안본부장에서 仁川市長으로 영전됐다.
1월 8일 후속인사에 서인천시장(자관급)으로 임명된朴培根은 간부부부 2기출신으로 38년간 경찰계에 몸 담아온 도시경찰통으로 지안본부 정보과장·同세 4부장·경찰종합학교장·서울시경국장등을 역임했다.
경찰수뇌부의 최고참인 차동문은 1m61cm의 단신에 뚜렷한 처신과 푸만한 성품으로 부하들의 신뢰를 받아왔다. 침술이 프로급인 차동문은 경북고時節학련경북지구 책임자로 좌익분야에 앞장서기도 했으며, 그 전지훈련을 위해 日本北海道 출학한 바 있다.

市警局長 李永昶 동문



간부후보 11기생으로 경찰계에 부신한 이래 경찰대학 교관·奉化·龍山경찰서장·大邱시경국장경·경북도경국장등 경찰要職을 두루 맡으면서 경찰정보통으로 수도 치안의 책임자가 될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었다. 「작는고주」라는 애칭이 밟해주듯 책임감과 통솔력이 뛰어나다는 衍評이다.

스키대표轉訓단장 막아 金在澤 동문



金在澤(49문화·대한 스키협회감사) 동문은 오는 1월 4일 국가 대표 스키 선수 단을 이끌고 전지훈련을 위해 日本北海道 출학한다.

金동문은 한달로 예정된 이번 휴식의 총 책임을 맡은 단장으로서 아세안개입 및 각종 국제대회를 대비한 제반훈련의 감독을 하게된다.

한편 金동문은 본회 인천지부고문으로도 활약중이며 스키 및 산악협회 입원을 맡는 등 각각 활동을 펴왔다.

창작집『幻想의 뒷』펴내
金容皓 동문

朴完一(61불교·조계종 전국 신도회 외장·본부 부회장) 동문은 방송 실의 위원

이며 현재 본회 부회장으로 활약중이다.

녹조근정훈장 받아 金榮柱 동문



金榮柱(58정치·서기관·본회이사) 동문은 지난 29일 있었던 85년우 수 공무원 고상에서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金동문은 그간 제주동우회장을 맡아 지회발전에 기여한 공헌을 했으며, 대구·제주지검 수사관, 제주도소방·제주지검 사무국장등을 거쳐 최근 광주고검 서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중이다.

『江原文化賞』 수상 崔燦麟 동문

崔燦麟(52경체) 동문은 지난 16일 江原文化賞(체육부문)을 수상했다.

崔燦麟은 지난 25년간 강원도체육회 일원으로, 또한 82년부터는 강원도축구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도체육발전에 이바

영전했다.

17년째 省界에 봄돌아온 李동문은 서울시 교육담당관·사회과학계장을 역임했고, 지난 82년엔 녹조포장을 수상한바 있다. 애교심이 강한 李동문은 재학시절은 학생회장으로도 활동했다.

한만철 재무관리관으로
崔章和 동문

지한 점을 인정받아 同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디플로머시』誌 열화
林德圭 동문



林德圭(60법학·디플로머시회장·본회이사) 동문은 지난 10월 헬튼 호텔에서 열린 한국신품 과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월한 업적을 쌓아왔다.
신품과학회 회장에 피선
河德模 교수

河德模(59교식품공학과) 교수는 지난 3일 서울 대에서 열린 한국신품 과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河 교수는 오랫동안 모교에 몸 달아오면서 식품과학과대학, 공대 학장 및 기획실장을 역임하는 등 학교발전에도 다각적으로 이바지해왔다.



提이 위
本物의
임상입니다.
近況이나
언제라도
随时通知您。

昌原技能大學長으로 金喜旭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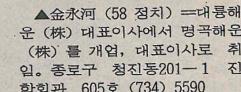


金喜旭(85대원) 동문은 지난 11월 26일부로 창원 기능대학 학장으로 보임됐다.

호남대학

강사를 지내온 金동문은 금년도교에서 「한국 해외직업투자에 관한 연구」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雜誌言論賞 特別賞받아
裴鍾大 동문



裴鍾大(62철학·본회이사) 동문은 제2회 잡지의 날 기념식에서 선정되었던 문학발전에 기여도가 주어지는 제19회 韓國雜誌論賞 특별상을 수상했다.

10년대부터 동지의 밤행사에 참석을 맡아 21년간 꾸준히 발행해온 葵동문은 모교 근로장학사업회의 주역이며 대한체육회 학생기수연맹 부회장, 對共聯爭同志會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金永河(58정치)=대통령

▲宋永培(71상학)=조홍은(86년 대표이사에서 명목해운(株)을 개설, 대표이사로 취임. 종로구 청진동201-1 진학회관 605호 (734) 5590)

▲宋永培(71상학)=조홍은(86년 대표이사에서 종로구 청진동201-1 진학회관 605호 (734) 5590)

▲朴得坤(80경쟁)=한일은행 광주지점 대표로 전보. 광주 (33) 4341

▲任國彬(85경쟁)=12월 7일 심복구 시신파워홀스강으로 부임.

▲朴信煥(59경제·회계사)=韓善基(59경제·회계사) 회장에 이전. 강남구 논현동 17-5 삼교빌딩 2층 (549) 2922

▲趙善道(72식품)=그림체 미리 테스트방 개업. 대전시 중구 은행동 45-6 (254) 7040

▲崔載九(52국문·국회의원·본회영예회장)=차남 澄濬 12월 20일 오후 2시 세교정 귀빈 예식장에서 화촉.

▲李相爌(82도록·설악파크판례교장)=12월 28일 오후 3시 서교동 경남에식당에서 화촉, 現동 아그룹 東友會총무.

移轉·開業

結婚

교 11代 총장에 李智冠 교수

이사회서 "比丘僧으로 두번째"

黃총장 후임으로



교의 제 11대 총장에 李智冠 (69대원) 교수로 선출되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은 지난 12월 이사회에서 열린 제 75회 이사회에서 오는 1월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黃壽永총장의 후임으로 李智冠 교수를 선출하고 문교부에 취임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 7·8일과 11·12일 네차례의 회합을 가진 끝에 智冠님을 선출하였다. 比丘僧으로 교의 총장으로 선출된 것은 제 2대 白性郁강이 이어 두번이다. 智冠님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 1932년 경남합천출생▲ 46년 해인사에서 김자운스님을 은사로 듣도▲ 53년 통도사에서 비구계수지▲ 78년 본선사에서 운 허스님을 법사로 거두▲ 63년 경 남대 종교학과▲ 69년 모교 대학원 불교학과▲ 76년 모교 철학박사▲ 65년 소계종중암총회의원▲ 68년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 70년 해인사 주지▲ 73년 총무원 총무부장▲ 73년 종암종회 부회장▲ 77년 모교 경각원 원장▲ 80년 교육대학원장(現)

박물관 이전작업 컴퓨터 설치따라

교 박물관이 지난 19일부

터 현재 전자계산소 자리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이전은 지난 11월 日本의 富士通株式会社가 기증한 F A C M - 160 F 컴퓨터의 설치공간 협소에 따른 것으로, 소장유물은 이미 옮겨졌으며 사무실 기타소장품은 내부설비 공사가 끝나는 대로 옮길 예정이다.

韓國畫 小品展

「面壁」 등 14점 전시
교 박물관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일주일동柱山館에서 「한국화 소품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宋榮邦(교미술과) 교수의 「面壁」을 비롯, 전국 각 대학 미술과 교수들의 작품 14점이 전시되었다.

80주기념 해외학술조사단 파견

불교유적지 답사...佛教美術영역학대

교 80주년 기념 해외학술조사단(단장=李載昌 교수·사진)이 인도의 간다라·캐시미르, 파키스탄의 모헨조다로 등 10여곳의 불교유적지 답사를 위해 지난 7일 출국했다. 오는 2일까지 약 한 달간 현지

교 80주년 기념 해외학술조사단(단장=李載昌(불교학과) 鄭明鑄(미술과) 段忠植(고고미술사학과)·文明大(미술과) 鄭炳浩(철학과)·徐慶洙(인도철학과) 교수 등 7명으로 구성, 불교유적지와同時역박물관 수장·불상동문화재를 다룬다는 조사하여 그 성과를 토대로 불교학연구와 한국불교미술의 신경지 개척을 시도하게된다.

출판부 도서개편 철학개론등 5권

교 출판부는 신입생용 교양도서중 철학개론, 개인과 국가(I), 불교개론, 불교문화사, 연구논문작성법 등 5권의 도서를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학교의 연혁·교직원·학사규정 등 내용의 학교소개 책자인 「東國大學校 要覽」도 개편하여 교과과정편을 분리, 교과목에 대한 해설을 보충하기로 했다.

慶州 학생회장에

노진표·이재일君

지난 5일 같은 경주캠퍼스 출·부학생회장 보궐선거에서 기호 2번의 노진표(영문 3)이재일(희계 3) 후보가 당선되었다.

교에 최신전자현미경 도입

첨단학문연구에 큰 도움

교 농과대학에 최신의 독일제 전자현미경이 설치되어 첨단학문연구에 크게 도움을 받게 되었다.

지난 10일 혜화관 4층에 설치된 이 현미경은 CARL ZEISS EM 109기종으로 40만배까지 확대가 가능하며, 도입가격은 제반시설을 포함하여 1억여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농대와 공대, 이과대학의 관련학과에서 사용하게 될 현미경은 표본준비가 끝나는 3·4월경

부터 정상가동 될 예정이다.

대학원 학생회장

張時基君 당선

교의 대학원 제 2 대 학생회장은 張時基(영문학전공·2학기)군이 당선되었다. 지난달 15·16일 양일간 동국관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張군은 총우호 투표 2백51표중 1백50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되었다.

86학년도 신입생모집요강 확정 13일 논술고사·면접, 26일 합격자발표

교의 신입생 모집요강이 확정·발표되었다.

교부처 발표에 의하면, 서울과 경주캠퍼스 모두 前期도집으로 1월 13일 논술고사와 면접을 치루게 되며 (예체능계 예과 및 한의예과가 1백15%이고 그밖의 대부분의 계열은 1백25%를 모집한다.) 전형방법은 인문계 및 자연계 학과가 학령고사 66·1% 고교내신 30% 논술고사 3·9

12일 12시에 예비소집이 있다.

이번 신입생 선발의 출입정원에 대한 초과모집비율은 의과과 및 한의예과가 1백15%이고 그밖의 대부분의 계열은 1백25%를 모집한다.

전형방법은 인문계 및 자연계 학과가 학령고사 66·1% 고교내신 30% 논술고사 3·9를 부과하며, 20점만점에 10점의 기본점수를 주게된다.

지역순회 간담회 17개 주요도시서

교 학생생활과는 함께 방학기간인 지난 12월 27일 첨단을 시작으로, 오는 2월 6일 인천에 이르기까지 전국 17개 주요도시에서 교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순회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느낀 제반 사항에 대하여 학생처장 및 학교행정책임자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는 자리라는 의미의 것이다. 이 자리에는 간단한 나과회와 아울러 「젊음과 학문」이라는 주제의 강연회도 가질 예정으로 부산, 마산, 청주, 대전, 춘천, 목포, 인천 등 전국의 17개 주요도시에 거주하는 교교학생이 어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태우君등 우승 통령기 레슬링

교 레슬링부의 김태우(체교 4) 군은 5명이 「제 11회 대통령기 챌린지」에 출전한 5명의 우승자로, 김태우가 「제 11회 대통령기 챌린지」에서 우승과 준 우승을 차지했다.

체육부 스카웃 마무리

야구 지화동君등 38명 등록

교 체육부의 86학년도 운동선수 스키웃은 지난 2월 현재 38명이 기동률을 미쳐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날까지 접수등록을 마친 선수들은 레슬링부에 금녀도 아시아 주니어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전남체고의 박현서군등 5명, 야구부는 청소년 국가대표인 천안부일고의 지회동군등 9명, 농구부 4명, 복싱부 6명, 축구부 14명 등이다.

각 종목별 선수명단은 다음과 같다.

▲ 농구=김태우(배재고) 박경호(연지고)·한민혁, 윤재산(이상 광주고)

▲ 야구=김남중, 지화동, 섬기

법(이상 천안부일고) 박정욱, 조정수(이상 광주일고) 이승범(동대문상고) 안진선(배재고) 김상길(칠석중고) 쪽원고(보성고)

▲ 축구=김재환, 조복연(이상 광운전공) 최경환(동내부고) 여종구, 엄성용(이상 영등포공) 김상희(동길고) 허지현(대신고) 김종필, 송희준(이상 학성고) 엄승호(경신고) 변정수, 정진동(이상 청구고) 오명선(안양공고) 조주상(창신공고)

▲ 레슬링=김진복(완산고) 문상운(군산고) 박현서, 박현희, 이주원(이상 전남체고) ▲ 복싱=송길환, 문경호(이상 전남체고) 오봉근, 이경수(이상 서울체고) 유창현(예덕실고) 장법원(한영고)

빙상 이준호君 국가대표로 선발

교 빙상부의 이준호(경제 2) 군이 지난 15일 태승실내링크에서 페더린 「제 1회 동계아시아경기」 파견 실내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선발전에서 종합 4위로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되었다.

이준호의 점수는 남자부 5백m와 1천m에서 3위, 1천5백m와 3천m에서 4위를 마크하여 국가대표로 선발. 오는 3월 일본 삿포로에서 열리는 제 1회 동계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和合團結...東國榮光"



86年度 新年人事會 개최

鄭在哲 정무장관 유임 鄭寬溶 총무처장관 취임 祝賀宴 겸 향

丙寅年 새해를 맞아 東國家族여러분의 健勝을 기원합니다. 母校 창립 80주년을 맞는 豐賀한 새해를 열며 東國中興意志를 더욱 새롭게 다짐하게 될 1986年 度 新年人事會에서 아래와같이 개최 할 예정이며, 또한 영광스런 東國80年史의 새장을 여는 신년벽두에 東國人民의 긍지를 드리운 鄭在哲 정무부총장의 政務長官 유임과 鄭寬溶 본희의 總務處長官 취임 축하연을 겸하게 되었으니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수 있도록 同門여러분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 아래 □

1. 日時 : 1986年 1月 24日(金) 오후 6時30分
2. 場所 : 플라자호텔 덕수관(21층)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事務局으로 문의바랍니다.
(전화: 267-8568 · 274-7449)

1986年 1月 日

東國大學校同窓會

會長 鄭 在 哲

영주浮石寺「祖師堂벽화」재현 적외선 촬영으로 고려시대 채색살려

孫連七 (77미술·교미술과
강사) 등은 최근 국보40호
인 浮石寺 祖師堂벽화를 재
현하는 개발을 올렸다.

韓國화학사상 귀중한 학술
작가치를 지닌 부서석벽화는
조사장 조성연대인 1377년경
의 작품으로 내용은 四天王
식이 4점, 菩薩과 南無釋迦
이 각 1점씩으로 오wan 세월동안
상당부분이 퇴락, 손상되어 많
은이들이 안타까워 했었다.

기로 2m22cm 세로 83cm 크
기인 대형벽화의 모사작업
은 먼저 제작자로부터 시작
되어 벽화방법을 위한
硬化처리, 트레일지에 1차
모사본작성, 純紙에 재모사
한 2차본을 작성한 후 원

벽화와 같은 채색을 하는
등 여러단계의 작업을 거
쳤다. 그리고 순지모사와 채
색과정에서는 탈락, 퇴색 등
으로 없어졌거나 육안판별



孫連七동문

이 힘든 부분을 적외선으
로 촬영 보완했다.
약 6개월여에 걸쳐 모사와
재원을 해낸 孫동문은 고려
시대에 사용했을 천여채색과

같은 효과를 넣 안료를 구입
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
또한 孫동문은 「단순한 모
사가 아니라 당시의 문화사
적 배경과 정신세계를 이해
하라고 노력했지만, 회화적
역량이나 정신세계는 따르기

◆榮州 淨石寺 祖師堂벽화
복원된 多聞天王像

힘들더군요. 특히 적외선촬영
에 성공, 밀그립을 확인할
수 있었던게 큰 수확이었
고, 스승들의 「먼저부처가 되
라」는 가르침이 머리속을
떠나 않았습니다. 라며 깊게
소감을 말했다.

한편 孫동문은 전통불화에
남다른 정열을 보여온 匠人
으로, 인간문화재 단청간인元
德文, 李萬峰스님에게 단청을
익혔고, 石窟寺스님에게 石窟
사사, 그간 단암자, 파고다공
원, 해인사 흥제암, 시리산 일
불암등의 불화 및 단청을 복
원했으며 81년 불교미전宗
正賞을 수상하기도 했다.

당분간 前代의 채색화를 분
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자료
수집 및 정리에만 몰두하겠다는
孙동문은 현대불화에도 관심
을 가지고 연구해 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東岳漢文學論集

제 2집

——東岳漢文學會刊

회제의 책

東岳漢文學會(회장: 李丙壽·
50국문·교묘교수)는 최근 「東
岳漢文學論集」 제 2집을 출간
했다.

고전 국평과 譚經事業들을
통해 한국漢文學의 새로운 기
풍이 일고 교육대학원 한문학
과 및 경주캠퍼스 한문학과 등의
신설과 함께 날로分化하는
추세에 맞추어 고교 국어문
학전통의 宜揚을 위해 지난
83년 7월 창립한 同會는 지
금까지 19편의 저작을 출판
하였으며, 지난 84년 9
월에 同論은 제 1집을 발행하
는 등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東岳漢文學論集』은 국내에



서는 유일하게 단일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는데 그 의의가 깊으며, 두번
째의 발간으로 불구하고 학界
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同

論집은 東國文學의 또 하나의 자
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교의 學統을 계승하
며 대학원 및 동문·교수등의
문을 수탁해 온 同論집에 이어도
이미 출간해 온 著집은 『東岳語
文論集』(20집발간) 「韓國文學
研究」(8집) 「李國元國學論
文요지집」(2집) 「月例研究
發表요지집」(34집) 등이 무
교국문학 발전의 초석이 되어
왔다.

同論집의 출판은 필자들의 자
금에 의존하여 그 재정을 충
당하고 있으며, 同會 회장인 李
丙壽교수는 발간보조비로 1백
만원을 회사해 同會의 계속적
인 발전과 더불어 同論집의 繼
刊의 난관을 해소시키기 주기도
해 외제.

이번 2집에 수록된 논문은
「杜甫의 애련과 가장의 自存」
(李丙壽) 「宋翼弼의 예학사상」
(麥相賈) 「鄭澈 한시의 李白
수용」(金甲平) 「徐居正시문학
의 一溯原」(李鍾建) 「한국演
劇개요」(尹光鳳) 「金澤榮의

역사인식」(吳允熙) 「李尙迪의
<論詩絕句>考」(鄭後洙) 「阮
堂·김진희의 書法論」(鄭祥玉)
「李梅窓 시문학론」(吳淳子)
「丁若蒲의 天思想」(金倫秀)
등 10편이며, 同論집에 수록된
논문들은 漢文學 작품의 품질
를 통해 江山이나 詩話의 면
주를 넘어서 성실한 비평태
도를 취하고 있다.

용이 실려있다.
〈福社文化社刊·1천원〉

「제 3의 腦를 개발하라」
鄭泰燦 동문

鄭泰燦(55불교·교묘교수) 등
들은 日本 桶川山雄씨의 저서
를 번역, 관령출판사(大표 権
寧齋·71경일)의 인간관구시리
즈인 「超腦思考개발의 시대 제
1권」을펴냈다.

21세기에 닥친 위기에 대
처하기 위해 인간은 간뇌(제
3의 뇌) 개발을 통해 구체되
며, 그것을 위한 불교수행의 방
안등이 흥미롭게 기술되었다.
〈관령출판사刊·2천 5백원〉

「中國혁명의 노래」
申庚林 동문

申庚林(59영문·詩人) 등은
최근 미국의 여류평론가 아그
네스 스메들리의 저서 「中國혁
명의 노래」를 번역했다.

이 譚書는 1928~41년간 中
共현지에서 혁명과정을 취재·
보도한 弗朗크포트의 차이총紙
의 평론가인 著者의 2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中國共產혁명의
기원과 전개과정을 국민들의 생
활상과 함께 포괄적으로 조명
했다. 〈恩社研刊·5천원〉

「신라狼山 유적조사」
張忠植 동문

張忠植(68인체·교묘교수) 등
들은 고적사고사·제 1책으로
『신라狼山유적조사』를펴냈다.

경주 동쪽에 자리한 소구름
狼山은 궁궐, 왕릉, 사원등 주
요 유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신라의 國刹인 사천왕
사지와 황사지사지 등이 전설되어
오던 지점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 내용은 狼山 유적·유
물의 현황, 유적조사 내용과
함께 이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조언으로 되어 있다. 〈東國대학교 박물관刊〉

「풀무치을 음수하는 비」
金容沃 동문

金容沃(77국문·詩人) 등은
의 첫 시집 『풀무치』을펴냈다.
이 책은 50여편의 시를 『寄
航日誌』 「풀무치」을음에 오
는 비」, 「호린 서녀」 등의 세 작품을
중심으로 나누어 실었으며, 김
준우(평론가) 씨가 「서정적 주
체와 어둠의 인식」을 통해 金
동문의 詩世界를 평하였다.

〈심상사刊·2천 5백원〉

『성숙한 東國80……이전 베풀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각동友會 등분들로부터
답지해오는 연하장을 기본마
음으로 받으며 주무는 한해
를 끝내보니 올해도 또한多
事多難이란 말만되풀이될뿐.

복잡한 인간사의 회피속에
서 그래도 금년 모교와 동
창회는 결사도 많았고, 많은
동분들이 승승장구했던 한해.

丙寅년, 모교80년의 회망찬
새해를 맞으며 本동동동구동
등분诸位에 새해인사와 견승을
기원 드리며, 더 나은 聞報
를 위해 노력할것을 다짐.
그리고 이제 성숙한 東國으
로서 베우는 마음으로 새로
운 東國80年史를개척합시다.

행사를 위한 행사有感

○…행사를 위한 행사로 그
친 친이 알지 않은 제14회 東
國의 밤에 有感 한다며.
해를 거듭해오며 東國家族
의 現진지도로, 友直과 結束
의 광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온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이 행사의 功. 이번 행사에

도 1천여 同門의 성황속
에 각종 80주년 기념사업이
발표돼宴會場을 메운 등분
들은 열기로 시종 겁고 흐
듯한 모습들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몇몇 별별 없는
同門들이 연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만류하는 안내원도 아
랑곳하지 않고 式中에 있던

있고 同門數도 7만으로 늘
어났으니 이에 밀접되어 이행
사가 더욱 뜻깊어질수 있도록
루 등문의 紛糾를 모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봤지만.

途年화제도 주령주령

○…沿革迎新이 12월을 맞
아 국내외 각支會는 차례로
운 송년모임을 열고 東國의
전체를, 東國인의 굳은 우의
를 표시했는데 신선하고도 훈
훈한 逸話가 있어 소개.

경大院동창회는 校歌競唱大
會를 마련, 회미한 기억을 더
듬으며 11개 동문가족팀이 참
가해 열광을 했는데 大賞은
權公雄(경원1917·권공옹정협
의 외관장) 同會부회장가족이 차
지. 또 庄南지부에서는 李在
福(43회전·보문고 校長) 同會
고문이 축사를 자작시조로 대
신해 원로선배의 東國愛에 모
두를 강동.

날 다시 나아주신 그리운
내모부/초인면이 만남에도
兄弟같은 동문이여/그로면서
멀어 주면서 그로밥에 살리다
(1聯)

여러 사람들의 눈을 끄는
게 하는 추대를 얻었. 東國
이란 깃발 아래 도인 同
문이니만큼 친구란 생각을 버
리고主人意識을 가져私の
인 감정을 자제했어야 하지
않았을는지요.

이제 東國文化賞도 제정되
여서 頒獎장을 주자와 시조로 대
신해 원로선배의 東國愛에 모
두를 강동.

날 다시 나아주신 그리운
내모부/초인면이 만남에도
兄弟같은 동문이여/그로면서
멀어 주면서 그로밥에 살리다
(1聯)

「東國人의 밤」客만 많아서야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

“선물준비를 위한 귀중한 시간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생 일, 약혼식, 결혼식, 회갑연, 기념식 등 기타 연회식을 위한 선물준비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품위있는 신라명과 케익이 당신을 만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신라명과 케익은 우리 입맛에 맞도록 잘 만들어졌으며 품위있는 색상과 장식등 눈으로 즐기고 입으로 만족하는 케익의 예술입니다.

격조높은 모임이라면 언제나 신라명과케익이 자리를 함께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주문에 따라 제작되는 스페셜케익은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며 설탕꽃, 설탕학 등은 고도의 기술로 만들어 집니다. 원하시는 때에 가까운 대리점에 연락주시면 곧바 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제품 안내

● 실용과 품위의 포장선물

전병선물셋트(땅콩, 해초, 송실),
마늘케익.

● 순수 식물성 생크림케익

딸기 생크림케익, 복숭아 생크림케익,
키위 생크림케익, 메론 생크림케익

● 커피향이 풍부한
모카빵



대표이사
홍 평 우
(70. 경영학)

新羅明과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200-1
(전화) (0343) 42-8036
소비자상담실 : 863-4040

● 신라명과 대리점

• 삼성디아	233-3131 (교 410)	• 서초	566-1848	• 청실	568-5827	• 동빙	755-5287	• 대교	783-1393
• 아제리아	233-3131 (교 411)	• 한양	543-3224	• 입구정	544-7830	• 중동	755-6094	• 신성	543-5539
• 신세계	756-8597	• 여의도	783-7059	• 종로	267-1879	• 문동	484-8862	• 고천	502-9937
• 영등포신세계	676-U931	• 고종	422-1550	• 일암	05-2226-7200	• 계동	462-4946	• 하인자식	415-9595
• 대치	556-5725	• 신반포	591-7200	• 일봉	542-5527	• 산도	813-8383	• 보백화점	43-0171~9 (교53)
• 한강	793-3528-3486-797-8536	• 뉴코아(구관)	559-7400	• 일봉	542-5527	• 기라	415-7304	• 파르코	544-9709
• 현대	543-9362	• 뉴코아(신관)	559-7440	• 관사	723-2162	• 빙이	423-9884	• 이촌	798-9600
• 반포	599-4700	• 한남	794-9300	• 신사	543-1108	• 불광	388-5332		
• 삼동	599-9604	• 신중(A)	323-8717	• 미도	554-4554	• 그랑프리	568-3421		
• 잠실	424-2257-413-9813	• 신중(B)	322-4555	• 워커힐	444-8556	• 삼익	412-8795		

이 음행을 9.16.5%로 대폭인하



대출 대출고객을 예금고객이상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고 있읍니다.

○ 어음 할인 : * 우대 적격 연 16.5~17%
* 기타 어음 연 17.5~18%

○ 부금 대출 : 연 18%

예금 금융기관중 최고의 수익을 드립니다.

○ 정기 예 탁금 : * 29 일 이하 연 9%

* 1 개월 이상 연 12.5%

* 3 개월 이상 연 13%

* 1 년 예 탁시 연 수익률 13.7%

* 3 년 예 탁시 연 수익률 15.3%

○ 부금 예 수금 (통장식) : 하루 만 말려도 연 9%

○ 목돈마련 신용부금 : 10~35개월 (연 14%)

진흥금고는 금고업계

유일한 상장기업
최대의 자본규모

입니다.

주식 회사 진흥신호금융고



■ 본점 : 서울·중구 북청동 93-52 ■ 영동지점 : 서울·강남구 삼성동 9-21
TEL. 778-9611 (代) (한국은행 앞)
TEL. 545-3653 (代) (강남구청앞)

TEL. 778-9611 (代) (한국은행 앞)
TEL. 545-3653 (代) (강남구청앞)